

# 광주, 1인당 총생산 3090만원...전국 최하위권

### '2022 잠정소득' 광주 지역내총생산 45조원...전국 총생산 2% 불과 광주 '3고'로 건설경기 악화 건설분야 총생산 10.3% 감소 영향 커

지난해 광주시 '지역내 총생산'과 '1인당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변한 산업기반이 없는 광주는 경기침체 속에 그나마 지역 경기 부흥역할을 하던 건설산업마저 뒷걸음질 치면서 지역 총생산 규모가 바닥을 쳤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지역내총생산은 45조원으로 전국 지역내총생산 2166조원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14조원)과 제주(21조원) 다음으로 낮았는데, 전국 6대 광역시 중 지역내총생산이 50조원을 넘기지 못한 지역은 광주가 유일했다.

지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

가한 수치를 뜻한다.

광주는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역내총생산이 고작 1조원 늘었다. 울산(8조원), 부산(6조원), 인천(5조원), 대전(3조원), 대구(2조원) 등 6대 광역시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보다 3.9% 증가했는데, 광주는 2.72% 늘어나는 데 그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서도 전국 평균을 밑돌며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각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을 지역 내 인구수로 나눈 수치로, 지역민 1명이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서비스 가치를 가리킨다.

지난해 광주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090만원으로 전국 평균 4195만원에 한참 못미쳤다. 이는

전국에서 대구(2674만원)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지난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평균은 4195만원으로 전년(4027만원)보다 4.2% 올랐지만, 광주는 전년(2978만원)보다 3.7%(112만원) 오르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내 재화가 부족하면서 지난해 광주지역의 역외유출률도 전년보다 1.2%p 오른 26.5%를 기록했다.

광주시는 또 경제성장률을 뜻하는 '지역내 총생산 실질성장률'에서도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난해 광주시는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을 1.7% 기록하며 전국 평균(2.6%)보다 0.9%p 낮았다. 역성장한 전남(-1.9%)·울산(-0.5%) 외에, 서울(1.6%) 다음으로 성장률이 낮았다.

광주시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하위권을 기록한 것은 건설 경기 악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타 시도와 견줘 산업기반이 열악한 광주는 건설

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인데, 이른바 '3고' (고금리·고유가·고금리)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도별 주요 증감 상위 산업'을 보면 광주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업(5.1%), 부동산업(2.7%)이 전년 대비 성장한 상위산업으로 분류된 반면, 역성장한 건설업(-10.3%)과 사업서비스업(-1.7%)이 하위산업으로 분류됐다.

건설 분야에서 총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광주 시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 건설경기 악화 등 건설투자 감소로 인해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뜻하는 '총고정자본 형성'에서도 광주시는 역성장했다.

지난해 광주시 총고정자본형성 증감률은 -8.9%를 기록했다. 전국을 기준으로 강원(-9.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한 시도로 꼽혔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게임들 올해 2차전지 '올인' 순매수 1위 POSCO홀딩스

올해 개인투자자들은 연령대와 자산 규모를 막론하고 반도체를 팔아 2차전지에 '올인'하는 때에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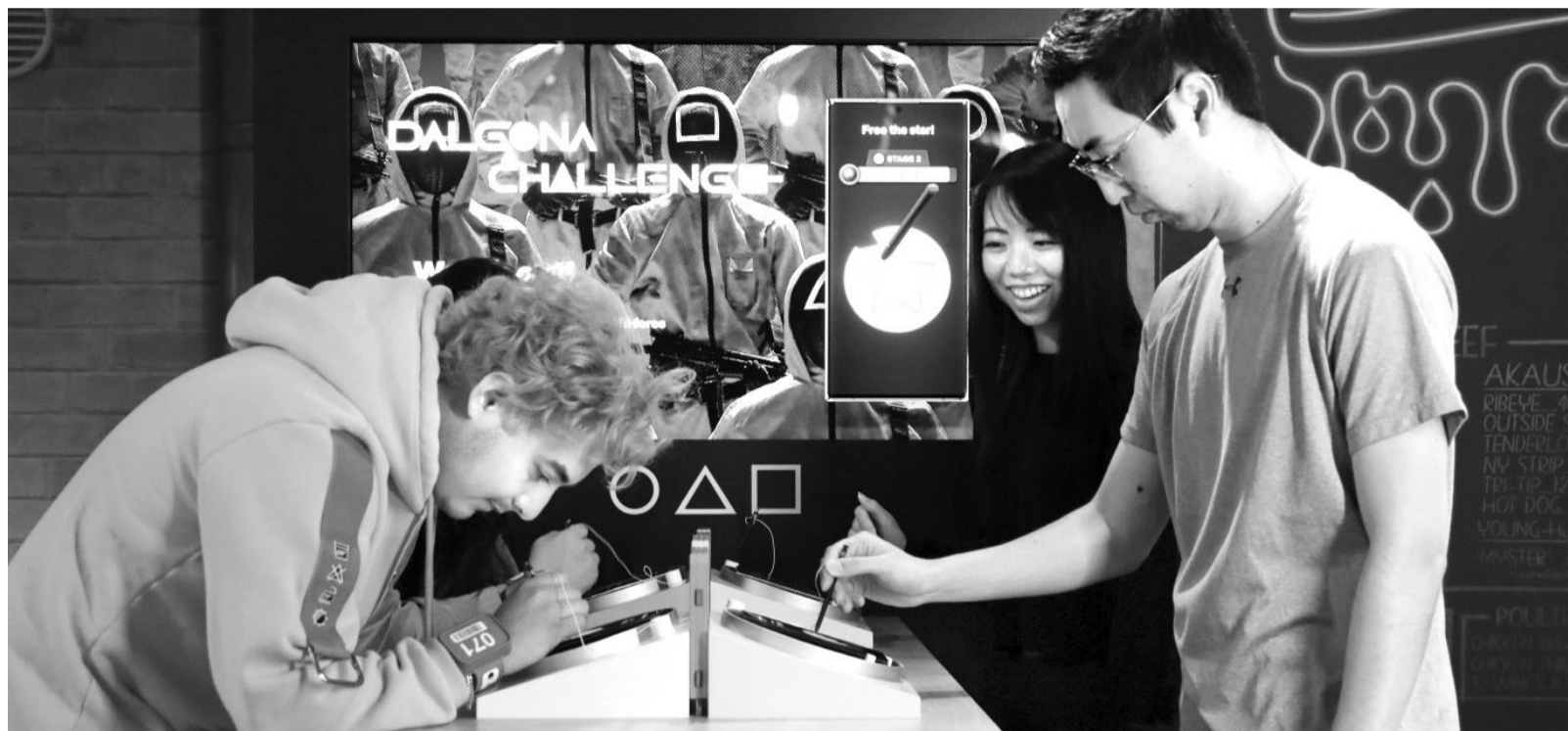
25일 NH투자증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연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POSCO홀딩스로 집계됐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2·3위를 차지했고 LG화학이 4위, 포스코퓨처엠이 5위였다.

나머지 6~9위 역시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전지 대형주였다. 10위만 LG생활건강으로 유일하게 다른 업종이었다.

2차전지 '올인'은 연령·자산을 막론한 현상이었다. 6개 연령대 구간(19세 미만·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 전부 1등 순매수 종목은 POSCO홀딩스였고 2등은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LG에너지솔루션 중 하나였다.

반면 순매도 1·2위 종목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갤럭시 S23 울트라 S펜으로 즐기는 '달고나 게임' 삼성전자는 넷플릭스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개장한 체험존인 '오징어게임: 더 트라이얼'의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체험존을 찾은 참가자들은 네오 QLED 8K TV를 통해 트레일러 영상을 시청하며 게임 속 세계관을 학습하고, 갤럭시S23 울트라의 하이퍼랩스 영상과 고화질 이미지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갤럭시 S23 울트라의 S펜으로 디지털 달고나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광주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10억원

## "땡땡이 유모차가 유아용보다 많이 팔렸다"

### 저출산 심화·반려동물 양육가구 ↑

반려동물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앞질렀다.

25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다.

두 카테고리 합계 판매량을 100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 비중은 2021년 33%, 지난해 36%로 소폭 높아진 뒤 올해 1~3분기에 57%

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대로 유아용 유모차는 2021년 67%, 지난해 64%에서 올해 43%로 뚝 떨어졌다.

G마켓 관계자는 "올해 두 카테고리 비중이 갑자기 뒤집힌 배경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반려동물용 판매는 늘고 유아용 판매는 감소하는 현상은 이전부터 지속해온 추세"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저출생 구조는 이미 굳어진 상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

에서 작년 0.78명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었다.

출생아 수도 2000년 64만명에서 2010년 47만명, 2020년 27만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5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 10명 중 한 명(25.4%)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통계도 있다.

반려동물용과 유아용 유모차의 극적인 판매량 변화는 두 사회적 현상이 맞물린 결과로 추정된다.

저출산의 영향 탓인지 출산·유아용품은 고급화되는 추세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광주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10억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왼쪽)은 지난 21일 본점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상생발전을 위한 광주은행 특별출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은 협약식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은행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추천한 광주지역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대출금리를 최대 1.2%p 감면 지원한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이번 특별보증은 연말연시에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함께 상생발전을 이루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씩, 총 5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올 한해 역시 광주시, 동·서·남·북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2억 5천만원을 별도 출연해 총 749억원의 신규 특별보증대출을 공급한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